

글 그림 장예람 조은아



### 그림책 소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무 명의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작가님들의 네 가지 환경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꿈꾸는 오렌지' 조가 만든 그림책 제목은 <기후 위기 막아주세요>이고,  
기후 변화로 자기 섬이 잠기고 있는 예온이와  
자신의 섬이 녹고 있는 북극곰 새싹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이 섬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출될까요?

### '꿈꾸는 오렌지' 조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꾸는 오렌지' 조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내가 그린 그림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싶어서  
그림책 <기후 위기 막아주세요>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 작가 소개



이름 : 장예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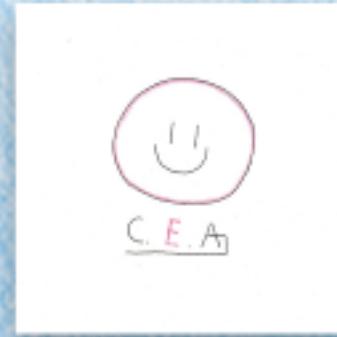
생일 : 2013.11.22.

취미 : 그림 그리기

별자리 : 전갈자리

혈액형 : O형

소속 : 흥도초등학교



이름 : 조은아

생일 : 2012.03.17.

취미 : 만들기, 손뜨개

별자리 : 물고기자리

혈액형 :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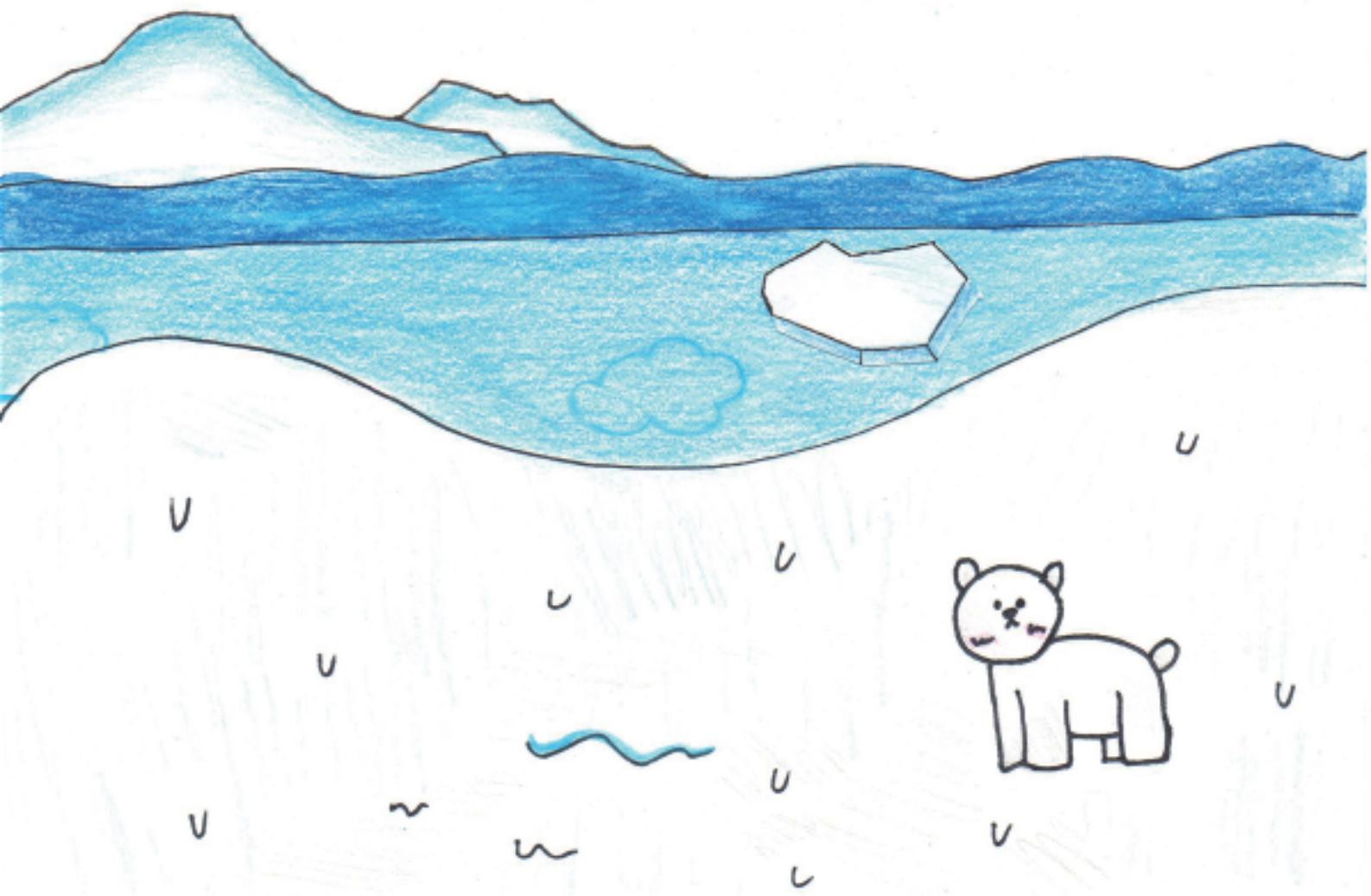
소속 : 고양화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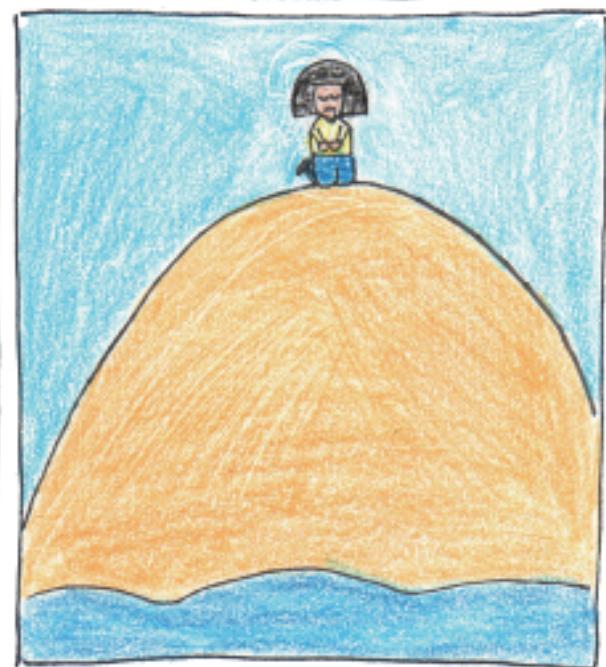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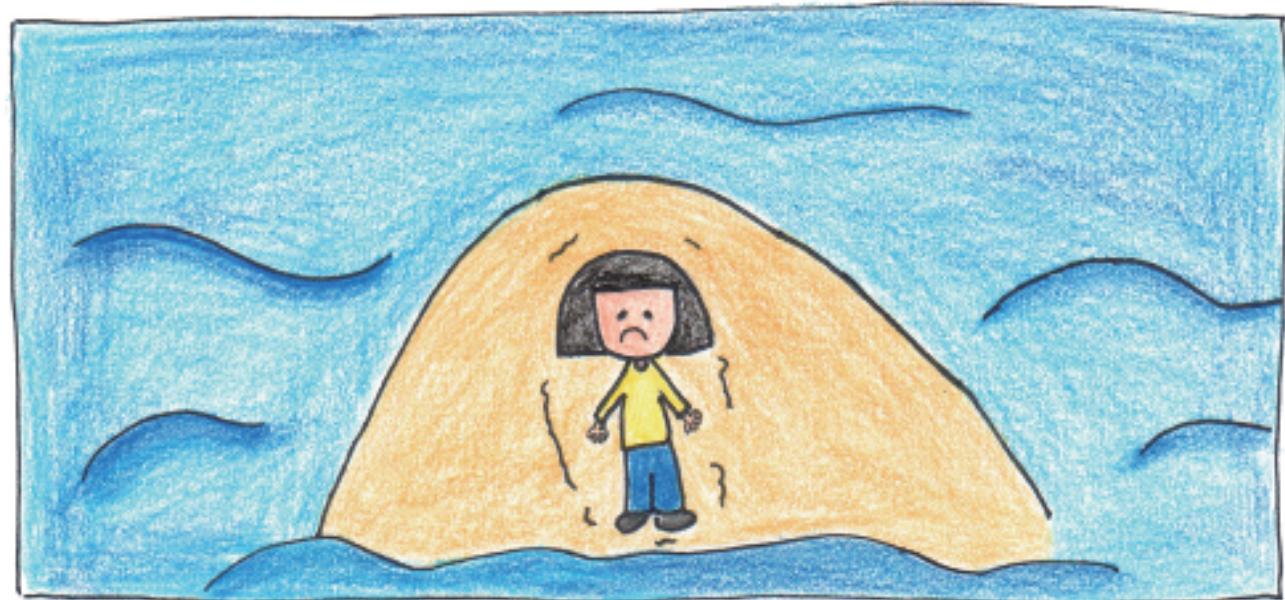
어느 바다에 북극곰 새싹이는 녹아내리는 얼음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는 점점 잠기는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전기를 마구 쓰고,

물을 아껴쓰지 않아서 만들어낸 기후 변화 때문이었지요.





예은이는 자신의 섬이 점점 잠기자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려고 SOS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섬이 잠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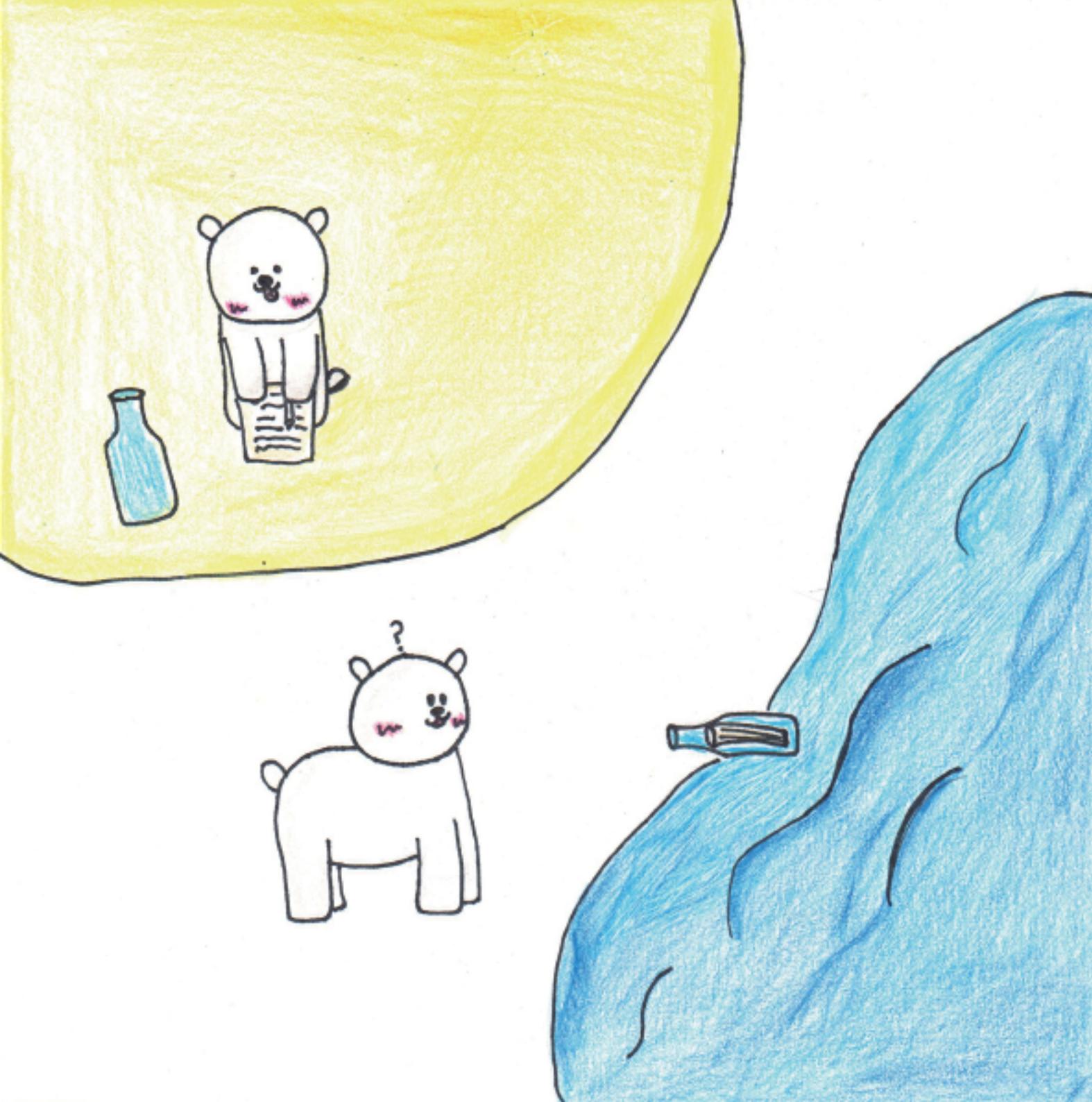
그리고는 유리병에 넣고 바다에 띄워  
누구라도 읽기를 기도했습니다.



배고파...

사냥하고 싶어...

한편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 섬에 사는 새싹이는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섬이 녹고 있어서 사냥하기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싹이는 크게 결심하고서 사냥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때 새싹이가 바다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유리병에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새싹이가 편지를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녹아내리는 섬에 살고 있어요. 섬이 잠긴다니 무서울 것 같아요.”



며칠 뒤 새싹이의 편지를 읽고 예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은이는 다시 새싹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위로해 주어서 고마워요. 날이 더워지면서 당신의 얼음 섬이 녹고,  
그 녹은 물이 불어나 제 섬을 잠기게 했나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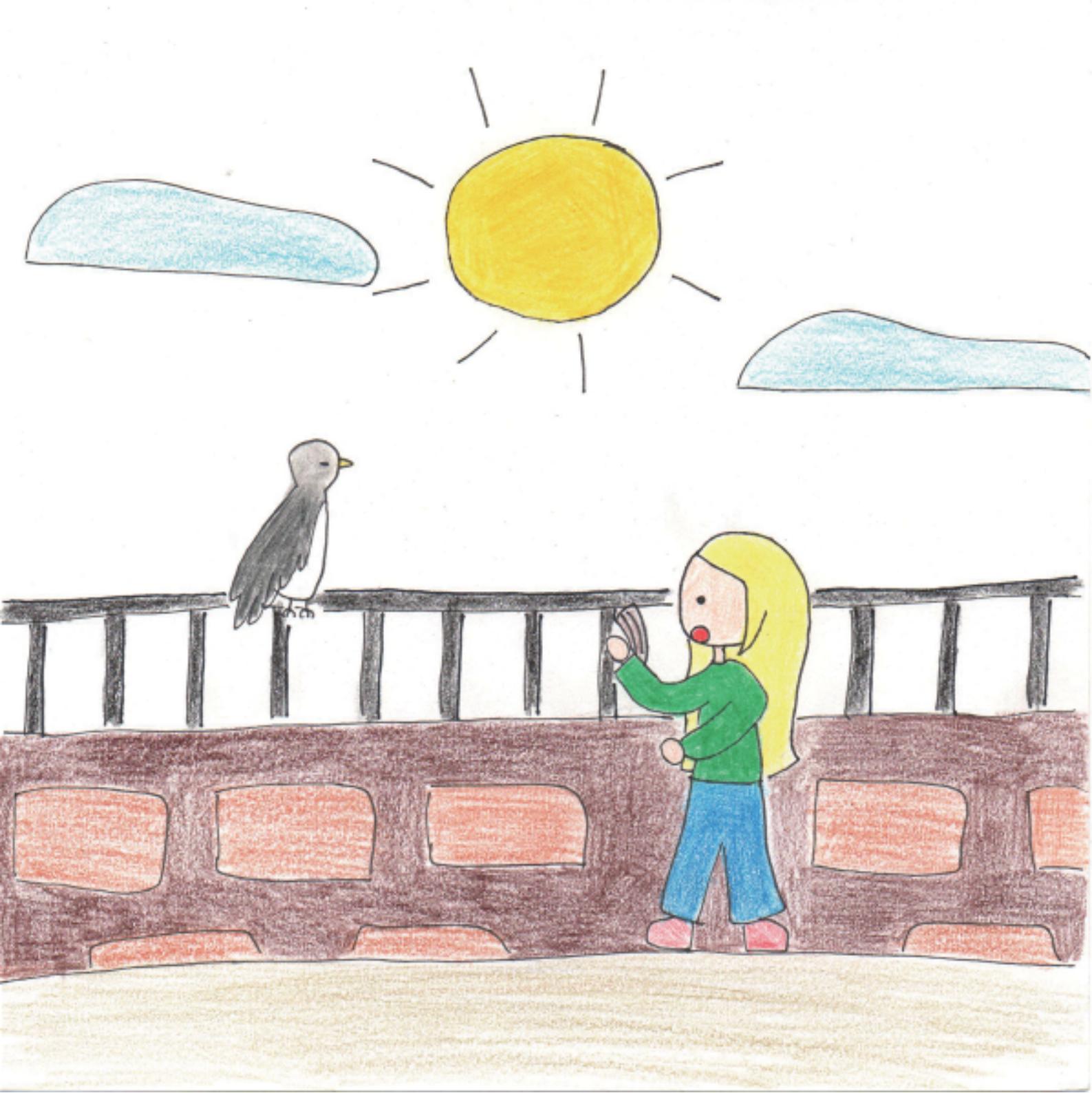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싹이와 예은이의 섬에는 편지가 쌓여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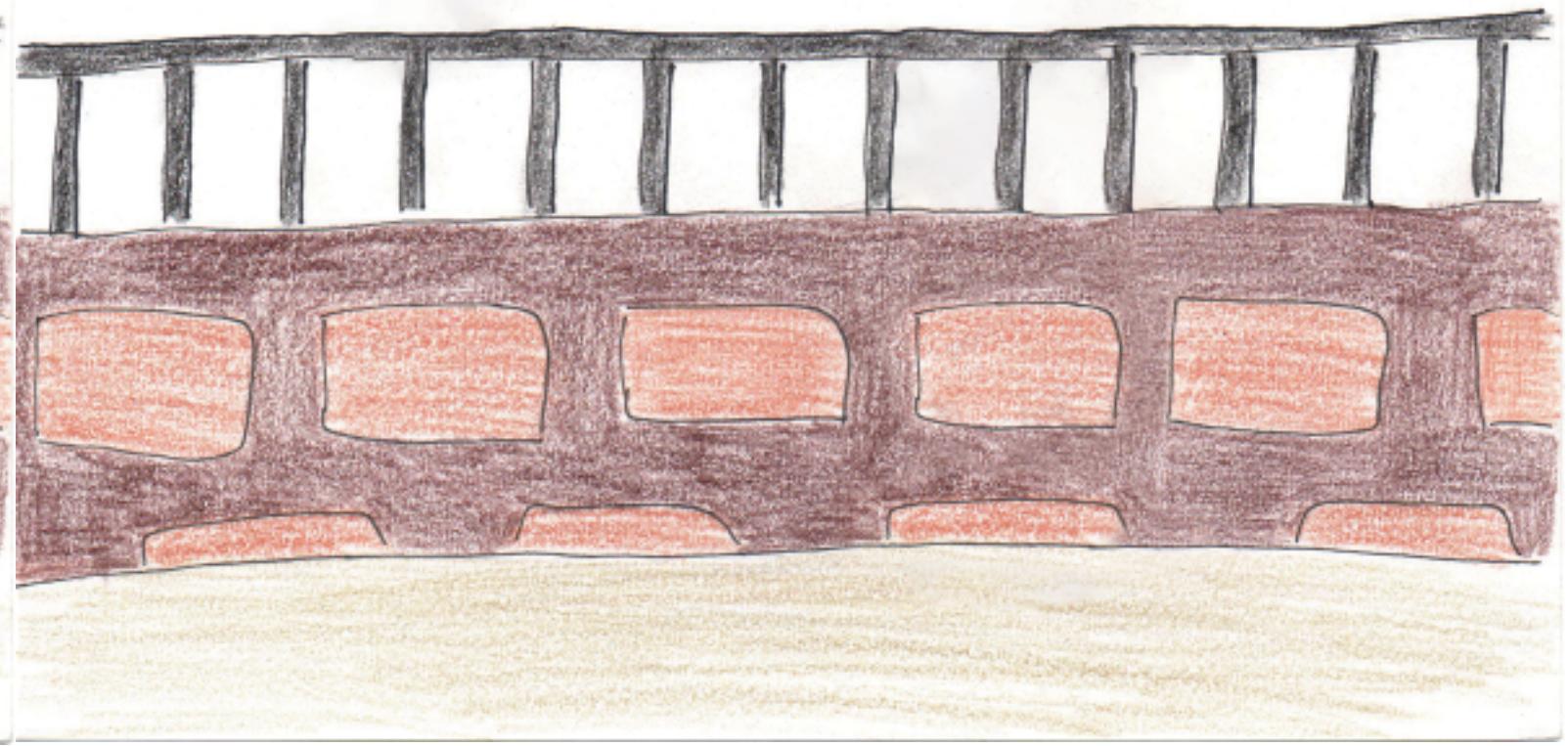
어느 날 어떤 갈매기가 새싹이와 예은이가  
모아둔 편지를 몽땅 가져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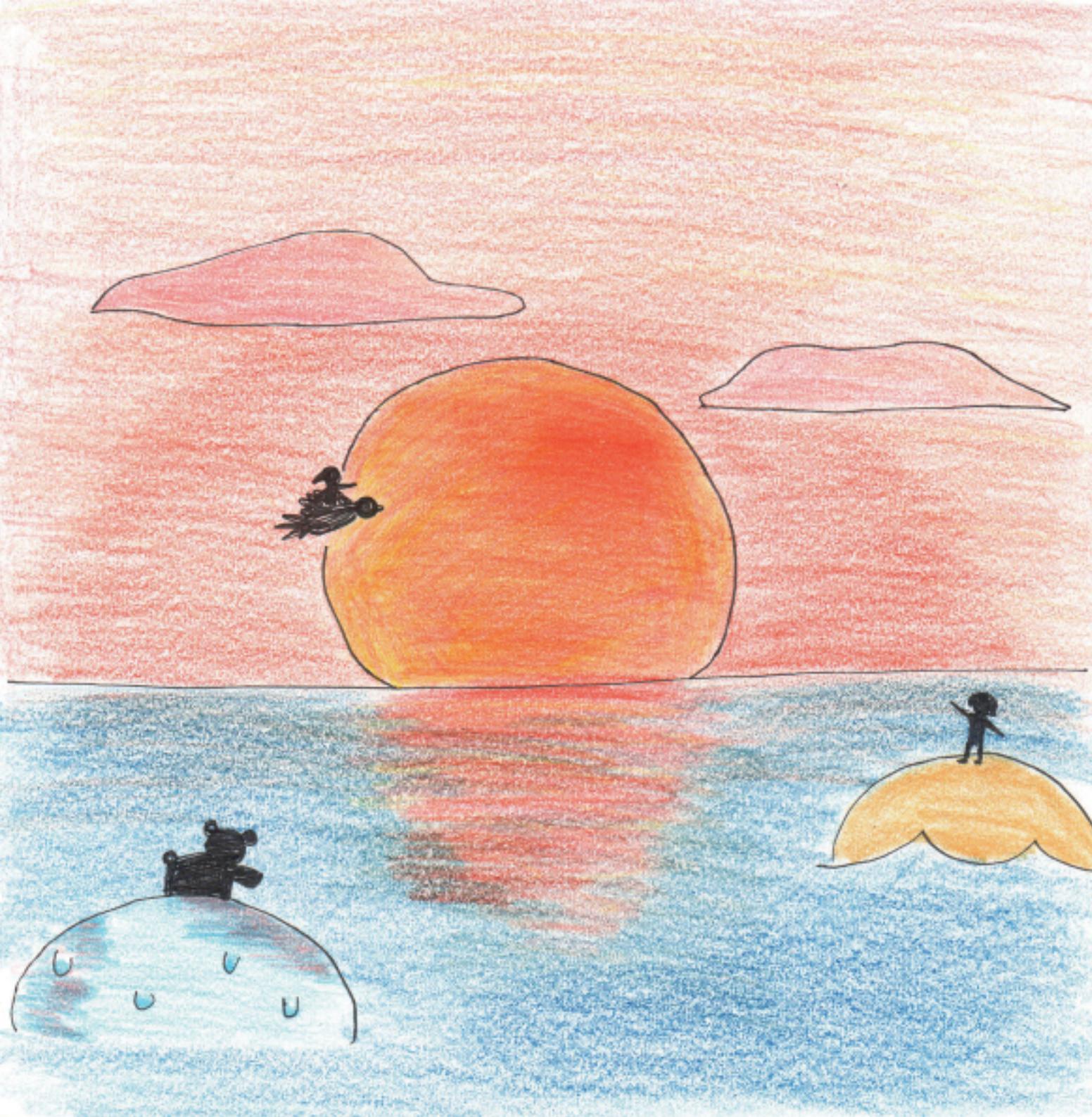
“안돼! 가져가지 마!”

새싹이와 예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갈매기가 저 멀리 대륙, 땅까지 날아와서  
편지 뭉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편지 뭉치에 맞았어요.  
아람이는 궁금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람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감한 아람이는 두 친구를 구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람이는  
갈매기를 타고 저 멀리  
지평선으로 사라졌습니다.

## 작가의 말

장예람

안녕하세요? 저는 흥도초등학교 다니고  
그림 그리기와 동물을 사랑하는 5학년 작가입니다.  
책에 나오는 예은이와 새싹이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보아요!

\*에어컨 너무 많이 켜지 말기

\*물 낭비하지 않기

\*일회용품 많이 쓰지 않기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보세요!

조은아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작가 조은아입니다.  
이 책에서 북극곰, 새싹이 그리고 예은이는 우리 때문에  
기후 변화가 생겨 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에서는 많은 북극곰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고  
또 지구의 많은 섬이 없어지고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투발루' 섬이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봅시다.

"제가 살고 있는 섬이 잠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후 위기 막아주세요

글.그림 장예람 조은아

편집 김지현

기획 예다움문화예술

펴낸곳 도서출판 예다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40 3층

상담 070-4401-2153

이메일 2462468@NAVER.COM

홈페이지 HTTP://WWW.KLLC.CO.KR

ISBN 979-11-91399-92-9 / 비매품

이 책은 저작권자의 독점계약으로 도서출판 예다움에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